# BKL ALUMNI NEWSLETTER

2022 Vol.9

BKL focus
BKL spotlight
BKL news
Alumni news

'한국적 국제로펌' 태평양을 만든 건 김인섭이 지킨 두 개의 결심이었다
기업을 지키는 철벽 수비 골키퍼 – 나이키코리아 성찬우 변호사

bkl

bkl

BKL ALUMNI VOL.9

## CONTENTS


**BKL focus**

04 '한국적 국제로펌' 태평양을 만든 건 김인섭이 지킨 두 개의 결심이었다

**BKL spotlight**

08 기업을 지키는 철벽 수비 골키퍼 – 나이키코리아 성찬우 변호사

**BKL news**

12 BKL, ALB 한국법률대상 11개 부문 석권… ESG 부문 초대 수상

12 BKL, 변화의 시대 발 빠른 전문팀 출범… '부동산PF·조세범죄' 등 분야 전문성 강화

13 BKL, 업무 자동화·AI 번역 솔루션 전면 도입… 디지털전환 가속화

13 영입소식

14 수상소식

BKL은 Alumni 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올 한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복과 건강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BKL Alumni News letter'를 모바일・PC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후세를 위하여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좋은 로펌의 씨를 뿌리고 가겠다.
그 로펌은 독자적인 비전과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히 존속해 나가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기초를 닦겠다.

*둘째,*
나는 65세가 넘으면 창업 대표변호사를 은퇴하되,
여러분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겠다.

# '한국적 국제로펌' 태평양을 만든 건 김인섭이 지킨 두 개의 결심이었다

**김인섭**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창업대표

김인섭은 왜 '좋은 로펌의 씨앗을 뿌리고, 65세가 넘으면 창업 대표변호사를 은퇴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두 개의 결심을 지켰던 것일까. 그가 가치집단을 지향하며 법무법인 태평양에 뿌리내린 민주적 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 물음들에 우리가 태평양의 끊임없는 실험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창세기에 십계명이 있었다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시작에는 '두 개의 결심'이 있었다. 십계명이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었다면 두 개의 결심은 오직 한 사람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결심들이 지켜지리라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조직에 대한 권리를 깨끗하게 내려놓고 물러난 이가 한국 사회에 과연 몇이나 있었던가.

"나는 이 로펌 '태평양'을 설립할 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로 그 날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인섭 창업 대표변호사(이하 경칭 생략) 퇴임식이 열렸다. 김인섭은 감회 어린 목소리로 퇴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왜 그런 약속을 했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일까.

김인섭이 법복을 벗었던 1980년 가을로 돌아가보자. 17년차의 판사로 서울지법 민사1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그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싫었다. 법관 생활 초창기 10년 간은 그런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었지만 1973년 유신 이후론 법관도 절대권력에 영합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웠다. 10.26으로 품었던 기대가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신군부 아래에서 보람 없는 법관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김인섭은 기세 등등하던 신군부 핵심세력의 근친이었던 법조인에게 모멸적인 대우를 받은 뒤 사직을 결심하게 된다. 가족과 주변의 만류보다 힘들었던 건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강조했던 자신의 법관자세론이었다. "법관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로 나가라." 그럼에도 그가 사직을 결행한 것은 '의미 없는 법관 생활을 이어가느니 더 늦기 전에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된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적 국제로펌'을 제 손으로 일구고 싶었습니다. 제가 판사를 그만뒀을 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업변호사들은 소시민적 직업인으로만 보였습니다. 국제화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상응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함께 일하면서 가치집단으로서 법률가의 비전과 책임감을 잃지 않는 로펌을 만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선 미국식 로펌처럼 완전히 비즈니스화돼서는 안 되고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의 기반 위에서 일하도록 해보자…. 'Lawyer is good neighbor'(변호사는 좋은 이웃이다)를 사훈처럼 사무실의 정신으로 삼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보기로 한 거죠."

1980년 11월 김인섭은 단독 개업을 하면서 원칙을 세웠다. 국제 로펌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로 '나 혼자만이라도 전관예우를 포기하는' 모범을 보이고 싶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

# “Lawyer is good neigh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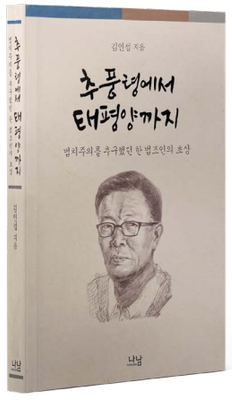
**를 사훈처럼 사무실의 정신으로 삼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보기로 한 거죠.”**

기로 하고, 수임할 수 없는 사건의 카테고리를 정해놓았다. 그 카테고리에는 마약, 밀수 같은 반사회적 성격의 조직범죄나 정치공작 관련 사건 등이 들어갔다. 소위 ‘돈이 되는 사건’들이었다. 1983년 이재식 변호사, 85년 황의인 변호사, 86년 배명인, 이정훈 변호사가 동참하면서 로펌의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합동법률사무소’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86년 12월이었다. 이른바 국제변호사가 아닌 토종 변호사가 세운 국내 최초의 로펌이 등장한 것이다. 개소식에서 김인섭은 두 개의 결심을 밝혔다. 그 이유는 새로운 로펌이 공통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민주적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두 가지 약속은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한국적 국제로펌’이란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로펌을 이끌 인재들을 영입하려면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런 로펌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이상적인 로펌을 만들어보자, 우수한 청년 법률가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겠다, 이런 색다른 소식이 자꾸 들려오니까 관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김인섭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사법연수원 기수마다 성적이 우수하고 법률가로서의 가치관을 제대로 갖춘 후배들은 꼭 만나 토론하고 설득했다. “내가 심은 나무를 수확하는 것은 여러분이다. 이런 과업을 해볼 자신이 있으면 와서 같이 일해보자.” 연수원 15기부터 19기까지 최우수 예비 법조인들이 잇따라 태평양을 택하면서 판사가 되길 기대했던 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했다. 한 변호사의 아버지는 세 번이나 김인섭을 찾아와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소연하다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추풍령에서 태평양까지**
사회를 향한 따뜻하고도 올바른 시선과 소명의식이 담겨 있는 김인섭 대표의 회고록

가장 큰 난관은 로펌의 기초가 세워질 때까지 어떻게 버티느냐였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가 로펌 운영 경비를 책임지겠다. 서두르지 말고 착실하게 로펌의 기초를 닦아나가자.” 김인섭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수입 전액을 로펌에 투자했다. 여기엔 변호사들의 해외연수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태평양 설립 다음해인 1987년 민주 항쟁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 사건 수임이 곤두박질쳤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사재를 털어 근근이 적자를 메워가야 했다.

자신이 다짐했던 로펌 내 민주적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인섭은 변호사 직급을 미국식 로펌에서 쓰는 파트너(partner)/어쏘시에이트(associate · 보조변호사) 대신 시니어(senior)/주니어(junior)로 나누기로 했다. 파트너/어쏘시에이트가 수직적 상하관계를 뜻한다면 시니어/주니어는 업무를 이끌고 익히는 선후배의 개념이었다.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과정은 한편으론 김인섭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요구했다. 1990년 시니어 변호사들이 정례회의 중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나서자 김인섭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괘씸하고 불쾌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바에는 시기를 앞당기자’ 마음 먹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완전히 공개했다. 태평양 규약 개정 때는 김인섭이 “사소한 내용인 만큼 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양해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시니어 변호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왔다. 편법으로 처리하면 나쁜 선례로 남는다는 것이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그들의 의견에 따랐다. 김인섭은 ‘사적 인연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채용의 철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인들로부터 인심을 잃어야 했다.

“성격이 급한 제게는 엄청난 참을성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민주적 토론문화가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게 결국 태평양의 저력이 된 겁니다. 대형로펌 가운데 이합집산을 겪지 않은 건 거의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창립대표인 저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태평양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철학 같은 것들을 ‘우리 헌법’으로 정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총론적인 합의가 돼 있으면 각론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되기 마련이지요.”

이제 태평양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으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기업법무, 해외투자, 금융, 공정거래, 규제, 인사·노무, 조세, 지식재산, 건설·부동산, 형사, 국내외 소송, 국제중재….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직원들과 함께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국 북경을 시작으로 상해, 홍콩, 두바이, 하노이, 호치민시티, 양곤,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에 해외 사무소를 개척했다.

김인섭이 법관 직을 그만둔 1980년, 한국적 국제로펌의 기치를 세운 1986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2002년, 이 세 번의 결단이 초유의 변호사 집단을 출현시킨 것이다. 가치집단을 지향하며 설립된 로펌은 태평양이 처음이다. 우리가 태평양의 끊임없는 실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인섭은 오늘날의 태평양을 예상했을까.

“네. 그런 목표로 꿈을 꾸고 이상을 가졌습니다. 내 대(代)에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지향하는 방향이 있었으니까요. 태평양이란 로펌 이름도 ‘한국에서 시작해 태평양을 거쳐 세계로 나아가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국제로펌으로 계속 성장해가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인터뷰 전에 이미 대표까지 역임한 후배 변호사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한 로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 JTBC보도총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기업을 지키는 철벽 수비 골키퍼

## 해상법 전문 변호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까지

**성찬우 외국 변호사 |** 나이키코리아 사내변호사

스포츠 브랜드 기업의 직원답게 성찬우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광이다. 축구할 때 그는 주로 골키퍼 포지션을 맡는다. 성 변호사가 골키퍼를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상대의 공격을 막고 팀을 지켜낸다는 점에서 골키퍼와 변호사가 닮아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키는 수문장이 되어 철벽 수비를 펼치고 있는 성찬우 변호사와 만났다.



“ 태평양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로펌이에요.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전 직원이 단합하고, 축구나 농구 동호회에서 다같이 뛰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

1 태평양 근무 시절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활약중인 성찬우 외국변호사

### Q 변호사님의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6월초 나이키코리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이키코리아의 법무총괄을 맡게 되어 국내외 변호사를 포함해 6명의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로서 현업부서의 의사결정을 돕고, 미국변호사로서 본사 및 다국적 임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 역할 중 하나입니다.

### Q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법무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나이키코리아의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여느 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서 검토, 일반 자문 및 소송, 컴플라이언스 검토 등을 수행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마케팅, 이커머스에 관련된 자문이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 검토가 많은 것이 나이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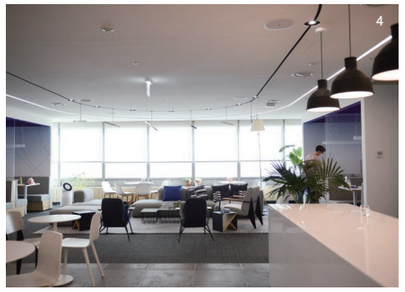
특히 나이키코리아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이에요. 이곳의 모든 직원들은 저를 “챈(Chan) 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유연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또 자율 좌석제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저와 잘 맞더라고요. 또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나이키에서 일하는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나이키 모양을 하고 포즈를 잡고 있는 성찬우 외국변호사

> “어리숙한 저를 성장시킨 것은 선배님들의 피드백이었어요.
>
> (중략)
>
> 실제로 후배들이 리더로 성장하고 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줄 때 정말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Q 변호사님의 화려한 이력이 눈에 띕니다. 태평양 이후 약 15년간 LG디스플레이, 필립모리스코리아, 홈플러스, 디아지오 등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을 거치셨어요. 변호사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워낙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운과 타이밍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LG디스플레이에서는 사내변호사로 첫걸음을 내딛으며 로펌과는 다른 기업의 시스템을 이해했고,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소통하는 법을 몸소 익혔습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에서는 임원을 달게 되면서 책임의 무게와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죠. 홈플러스나 디아지오 등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대규모 사건을 수행하면서 팀원, 본사, 로펌 등 사람들과 소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협업과 관계를 배웠습니다. 운이 좋게 매번 저를 찾아주는 곳이 있고, 그 때마다 배우고 성장한 경험들이 저를 계속 도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4 나이키코리아 본사 사무실 전경. 왼쪽부터 카페테리아, 사무실 공간이다.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하면서 나이키만의 색깔이 묻어나는것이 특징이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회사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은 힘들수록 기억에 남죠. LG디스플레이 법무팀장 당시 사내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사내 각 부서 관계자,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까지 협업하는 상당한 규모의 업무였는데요. 사람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또 외국계 기업에 있을 때는 규제 당국의 비정기 조사(Dawn Raid)에 대응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두 번, 국세청, 관세청, 경찰, 검찰에 노동위원회까지 대응했네요. 외국계 기업의 법무 담당자로서 한국의 법률과 규제에 대해 본사에 설명하는 일까지 더해지니 더욱 쉽지 않고요. 양벌규정에 따라 개별 임직원이 책임 대상에 포함될 때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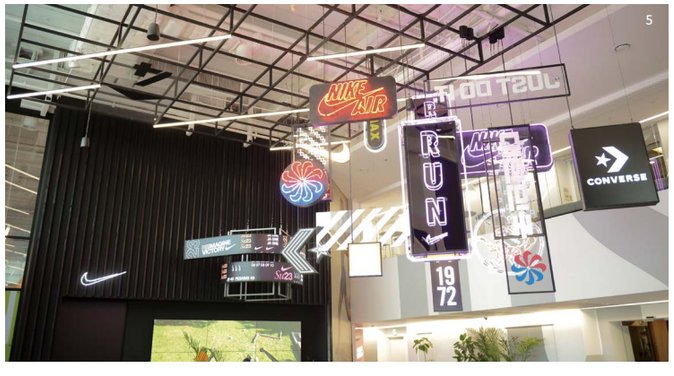
**Q 벌써 28년차 변호사로 생활하고 계신데, 본인을 어떤 선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리숙한 저를 성장시킨 것은 선배님들의 피드백이었어요. “성 변호사는 아직도 미흡해”라고 말씀하시던 고(故) 황보영 변호사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죠, 서운했는데 또 그 피드백이 저를 더 상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칭찬이든 개선점이든 제 코멘트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드백하고,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리더로 성장한 후배들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때 뿌듯하고 정말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Q 변호사님께 태평양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BKL Alumni 독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태평양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로펌이에요.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전 직원이 단합하고, 축구나 농구 동호회에서 다같이 뛰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태평양 덕분에 제가 한국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이 제 고향이고 친정이에요. 태평양 선후배분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일상에 즐거움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진행** | 홍보팀




5 나이키 코리아 본사 사무실에 위치한 재미있는 네온사인 오브제들

## BKL, ALB 한국법률대상 11개 부문 석권… ESG 부문 초대 수상

BKL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2 (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총 11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BKL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며 여타 로펌들을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BKL은 특히 증권·금융,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며 견고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평채 발행 및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본드 발행',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및 퍼시픽자산운용의 데이터센터 개발', '해외 물류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상장'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 성사를 뒷받침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의 프랑스 재생에너지 기업 RES Méditerranée S.A.S) 인수', 'LG전자의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사건', 'Uber Technologies의 국내 모빌리티 사업("UT") 운영' 등 주요 거래, 분쟁해결 및 규제 이슈에 관해 자문한 태평양의 에너지, 인사노무, TMT 팀 또한 '올해의 로펌'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산업계 전반으로 자리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자 신설된 '올해의 ESG 로펌'상을 BKL이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탄소 저감기여 정책(페이퍼리스 제도, 공용공간 다회용 컵 비치 등)과 다양한 공익활동, 유연근무제 및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구성원 간의 소통의 장(場) 정기적 운영 등 더 나은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BKL은 ALB 시상식에 참여한 이래, 올해 가장 많은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종합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BKL, 변화의 시대 발 빠른 전문팀 출범… '부동산PF·조세범죄' 등 분야 전문성 강화

BKL 글로벌 경제가 급변하고, 고객 기업을 둘러싼 내부 환경의 변화들에 대한 고객들의 효과적인 대응을 돕는 전문팀을 발 빠르게 출범했습니다.

BKL은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을 출범했습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는 금융기관, 시공사, 시행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쇄적으로 부실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은 송무그룹을 총괄하는 전병하 대표변호사(18기)를 중심으로 건설·부동산, 금융, 기업 구조조정 등 관련 분야 핵심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팀은 위기진단대응본부 산하에 조직된 전문팀으로, 위기진단대응본부의 노하우와 20년 이상 축적해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시켜 전문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찰의 조세범죄합수단 출범과 함께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세범죄수사대응팀**'도 확대 출범했습니다. 검찰이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따라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조세범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수사·조세 당국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건을 보다 입체적이고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팀의 조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지낸 노승권(21기) 변호사가 이끄는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이 유기적으로 협업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한 이유는 조세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형사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국세청 조사, 검찰 수사, 재판 등 사안에 대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BKL, 업무 자동화·AI 번역 솔루션 전면 도입… 디지털전환 가속화

BKL이 로봇 업무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와 글로벌 AI 번역 등 리걸테크 솔루션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RPA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로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문서 조회 및 서류발급 등에 활용됩니다.

BKL은 자체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개발해 RPA 솔루션의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BKL 내부 시스템에 처리대상 업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여러 대의 로봇으로 작업이 분할되어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되는 환경을 국내 로펌 최초로 구현했습니다. 자동화 과정 중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람과 로봇의 협업 형태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UiPath 솔루션의 액션센터(Action Center)기능을 적용하여 처리 정확도 및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BKL은 글로벌 번역기업 RWS사의 AI 번역 솔루션 '랭귀지 위버(Language Weaver)'를 도입해 RWS 번역 및 학습 기술에 법률 데이터를 학습시킨 BKL 전용 번역 AI 솔루션으로 판결문·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신속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KL은 내부의 번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번역의 최적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문번역툴 '트라도스(Trados)'를 도입해 트라도스와 랭귀지 워버를 연동하여 번역된 데이터를 AI엔진에 바로 학습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로펌 업계의 선진화를 선도해 온 BKL은 앞으로도 입체적 첨단시스템으로 최적의 솔루션 제공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 영입소식

• **노승권 변호사(21기)** – 1995년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중수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검사장), 대구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 **김신 변호사(27기)** – 2001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또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 **김정환 변호사(33기)** – 2007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식품의약범죄전담부 및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4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기업의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 **조용복 고문(前 국회사무차장(차관급))** – 1992년 제11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국회정무위원회와 국회행정위원회,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친 입법전문가로 평가 받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으로 근무하며 입법 과정 전반과 금융, 재정 전문성, 예산 분야 경험을 두루 쌓았습니다.

• **임성남 고문(前 외교부 제1차관)** –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서, 주아세안 대표부와 주영국 대사관의 특명전권 대사로도 근무하였습니다. 주중국 대사관, 주미국 대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 주유엔 대표부 등에서도 근무하면서 다양한 국제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이영찬 고문(前 보건복지부 차관)** –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 수상소식

**• BKL,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BKL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BKL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BKL의 매출은 전년보다 13%가량 증가한 3억 3688만 8000달러(지난해 말 평균 환율 기준, 원화 약 3988억원)였으며, 변호사 1인당 매출(Revenue Per Lawyer, RPL)은 57만 9000달러(원화 약 7억원)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순위로는 165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BKL이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배경으로는 디지털 금융,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BKL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업무에 대응해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9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크로스보더 자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강점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BKL,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자문사'·'올해의 딜' 석권**

BKL이 '2022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으로 '올해의 딜(The Best Investment and M&A Deal of the Year)'상을,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자문사(The Best Advisory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했습니다. 베트남 M&A포럼에서 3년 연속 Tier 1으로 선정된 경우는 국내 로펌 중 BKL이 유일합니다. 이 같은 성과는 BKL 동남아시아팀이 오랜 기간 쌓아온 현지 경험과 전문성이 빛을 본 결과로, 베트남 지역 최상위 로펌(Tier 1)으로서 압도적 존재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트남 M&A 포럼'은 베트남 정부의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언론기관인 VIR(Vietnam Investment Review)이 주관하는 베트남 최대의 M&A 관련 행사로, 한 해 동안 베트남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M&A 거래와 뛰어난 성과를 보인 M&A 자문사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 BKL, 2022 아시아 여성전문가 시상식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BKL이 '2022 아시아 여성전문가 시상식(2022 Women in Business Law APA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한국 최우수 로펌'상을 수상했습니다. BKL은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부 단축 근무제 ▲여성 전용 휴게 공간 운영 등 여성 친화적 복지 체계를 수립·실천해 왔습니다. 또 여성 전문가간 네트워킹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태평양이 그간 실천해온 ESG 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개인 부문에서는 3명의 변호사가 선정되며 국내 로펌 중 최다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김현아 변호사(29기), '올해의 공정거래 변호사' 선정
박지연 변호사(31기), '올해의 ICT변호사' 선정
이한길 변호사(42기), '국제중재 부문 라이징 전문가' 선정

**• 강기중·이한길 변호사, ALB 아시아 우수 변호사 선정**

강기중(18기), 이한길(42기) 변호사가 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발표한 '아시아 지역 지식재산권 우수 변호사 15인', '40세 미만 우수변호사'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지식재산권 우수 변호사 15인'에 선정된 강기중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지적재산권 총괄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한길 변호사는 한국의 국제중재 분야를 이끌 차세대 전문가로 꼽힙니다. 이 변호사는 국제중재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필리핀 발전소 건설 EPC 사업과 관련된 SIAC 중재', '두 다국적 사모투자회사(PEF) 사이에 발생한 인수 후(post-M&A) 분쟁 관련 HKIAC 중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이오령 변호사, In-House Community 올해의 우수 변호사 선정**

이오령 변호사(34기)가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 법률 전문매체 인하우스 커뮤니티(In-House Community)가 주최한 2021 올해의 변호사 시상식(Counsel of the Year Awards, 2021)에서 '올해의 우수 변호사'에 선정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매우 신속한 답변으로 고객을 안심시키는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선정은 인하우스 커뮤니티가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5년 태평양에 합류한 이래 줄곧 기업법무 분야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 Stay in touch

BKL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조사 및 소식
- 연락처/정보변경
- Job offering

## Contact

**김 지 현** 변호사

**T** 02.3404.0180
**E** jihyun.kim@bkl.co.kr

**김 지 나** 책임 | 기획실

**T** 02.3404.0872
**E** alumni@bkl.co.kr

**편집 및 디자인** | 홍보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T** 02.3404.0000 **E** bkl@bkl.co.kr **www.bkl.co.kr**

© 2022 BAE, KIM & LEE LLC. ALL RIGHTS RESERVED.